| 새바람 행복 경북! | **경상북도 보도자료** | 2020. 7. 13(월)<br>TEL. 054-880-4322 |
|---|---|---|

| 제 목 | 담당부서 | 비 고 |
|---|---|---|
| ① **'다시 뛰는 경북' 위해 문경에서, 김천에서... 바쁜 도지사**<br>문경·김천 현장간담회, 지역경제 회복방안 모색 및 도민들과 현장소통<br>아주스틸과 리쇼어링 MOU체결... 정부 비상경제회의 후 최초 유턴사례 | 자치행정과 | |
| ② **이철우 도지사, 디젤열차 타고 문경~김천간 예타통과 촉구**<br>도지사, 도의원, 김천·상주·문경시장, 지역 시의원과 함께 경북선 탑승<br>문경~김천간 철도 구축을 위한 민·관·의회 공감확산 | 도로철도과 | |
| ③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경북 샤인머스캣 수출길 활짝**<br>7.13일 경북 샤인머스캣 베트남으로 첫 수출물량 상차식<br>샤인머스캣 열기로 경북 포도수출 해마다 급증, 전국 포도수출 79%담당 | 농식품유통과 | |
| ④ **도청신도시 인구 2만명 돌파 눈앞!**<br>6.30일 현재 인구 1만8천143명, 금년 하반기 2천5백명 증가 예상<br>금년 하반기 9개 유관기관 이전 완료, 인구증가 가속화 기대 | 신도시조성과 | |
| ⑤ **경북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쾌거!!**<br>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영주·영양·봉화·의성 선정, 국비 62억원 확보 | 도시재생과 | |
| ⑥ **경북도, 수출기업 SOS 요청에 수출물류비 1천만원 지원**<br>7.20일부터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접수<br>상반기 수출선적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 외교통상과 | |
| ⑦ **'백두대간 송어' 내수면어류로 첫 군납품 길 열어!**<br>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극복. 새로운 소득활로 롤 모델<br>연어과 어류인 송어, 신세대 장병 입맛 공략 성공 | 해양수산과 | |
| ⑧ **경북도, 디지털통상 시대 맞춤형 청년무역인 양성에 박차**<br>7.13일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청년인재 60명 입교식 개최<br>2013년 이래 총 502명 배출, 취업률 82%, 무역실무와 현장 전문지식 교육 | 청년정책관 | |
| ⑨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양성 프로젝트 시동!**<br>도농업기술원, 7. 13(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2기 교육 개강식<br>사전교육(6주), 창업실습훈련(1~2년), 창농지원 3단계로 맞춤형 교육 지원 | 농업기술원 | |
| ⑩ **여름철 벌집제거 증가! 벌 쏘임 주의!!**<br>벌집제거 출동 증가, 벌 쏘임 방지 안전수칙 준수 당부<br>벌에 쏘였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신속히 119신고 | 소방본부 | |

**【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정책방향 실국별 기획 보도자료 】**

| 제 목 | 담당부서 | 비 고 |
|---|---|---|
| **이철우 도지사 민선 7기 2년.. 농촌부활은 시작되었다 !**<br>귀농 전국 1위·월급받는 청년농부·6차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업<br>이철우 표(標) 농정 동력.. 농식품 유통혁신 프로젝트 추진<br>스마트팜 혁신밸리 직행 티켓.. 전국 최다 스마트농업화 추진.... | 농축산유통국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 |
|---|---|---|---|---|---|---|
| | | 작 성 자 | 과 장 | 정 진 환 | | |
| | | | 사무관 | 이치헌 | 주무관 | 전진영 |
| | | 연 락 처 | 054-880-2826 | | | |

# ‘다시 뛰는 경북’ 위해 문경에서, 김천에서... 바쁜 도지사

**- 문경·김천 현장간담회, 지역경제 회복방안 모색 및 도민들과 현장소통 -**

**- 아주스틸과 리쇼어링 MOU체결, 정부 비상경제회의 후 최초 유턴사례 -**

이철우 도지사는 13일 하루 동안 ‘다시 뛰자 경북’ 시군 현장 간담회를 문경과 김천에서 이어갔다.

‘다시 뛰자 경북’ 시군 현장 간담회는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 28일 포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방하며 추진하고 있다.

13일 오전 이철우 도지사는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경상북도의장, 지홍기·전경홍 문경BC(Beyond the Corona) 범시민 추진본부 공동위원장, 청년CEO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뛰자 경북’ 문경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경북도는 BC(Beyond the Corona) 범시민 경제살리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문경시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경 현장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세상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북과 후손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라며, 미래로 재도약하는 경북의 역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철우 지사는 문경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천을 방문해 육아종합지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 김천경제회생 범시민대책 추진위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청년CEO, 시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뛰자 경북’ 김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장, 아주강재 이병형 대표 등과 함께 투자금액 500억원,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안이 제시된 이후 지역 최초의 유턴 투자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주스틸㈜은 올해 5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필리핀 마닐라 사업장을 청산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에 올해 8월부터 2023년까지 6만6천116㎡ 부지에 가전제품 및 친환경건축용 내외장용 칼라강판 생산 공장을 신설할 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리쇼어링 투자유치 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공급망이 붕괴되어 국내복귀(리쇼어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산단 임대전용단지 지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비 지원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확대, △고용창출 장려금 추가지원 등 경북형 국내복귀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진 ‘다시 뛰자 경북’ 김천 현장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진행을 맡아 코로나 대응 방역 등 위기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농어업 분야 지원, 관광 활성화, 지역발전 방안, 미래역점 과제 등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의료진,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경북의 코로나 상황을 진정세로 돌려세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지역경제가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라며, “경북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도정의 방향을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아이디어와 신규시책 발굴에 힘써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사진별첨〉

**참고**

# "다시 뛰자 경북" 문경김천 현장소통 간담회

##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7. 13.(월) 10:00 ~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쌍용양회공업(주) 문경공장
→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참석인원 : 100명 정도 / 120명 정도

- (道)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의원, 일자리경제실장 등
- (문경시) 시장·시의장, 시의원, 범도민위원, 문경BC 범시민 추진본부 등
- (김천시) 시장·시의장, 시의원, 범도민위원, 사회단체장 등

## 2 시간 계획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0:00~11:20 | 80′ | 1 「다시 뛰자 경북」 문경 현장소통 간담회<br>○ 개회,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20′)<br>○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 발표 및 토론(60′)<br>- 다시뛰자경북 추진전략 발표(12′)<br>- 문경시 지역경제활성화 주제발표(8′)<br>- 현장소통 간담회(40′) | 【대회의실】<br>- 100여 명 |
| 15:00~15:15 | 15′ | 3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br>○ 인사말씀(회사대표, 도지사, 시장, 시의장)<br>○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 설명<br>○ 투자양해각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
| 15:15~17:00 | 105′ | 4 「다시 뛰자 경북」 김천 현장 간담회<br>○ 시립국악단 국악 신명마당 (10′)<br>○ 기념촬영, 개회, 참석자 영상소개 (15′)<br>○ 인사말씀 (15′)<br>○ 「다시 뛰자 경북」 경제활성화 발표 (20′)<br>- 「다시 뛰자 경북」 추진전략 설명<br>- 김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발표<br>○ 도지사 김천 현장 간담회(45′) | 【육아종합지원센터】<br>※ 3층 공연장<br><br>- 道정책기획관<br>- 市기획예산실장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 | |
|---|---|---|---|---|---|
| | | 작 성 자 | 과 장 | 김 영 주 | |
| | | | 사무관 | 김효준 | 주무관 | 복성원 |
| | | 연 락 처 | 054-880-3977 | | |

# 이철우 도지사, 디젤열차 타고 문경~김천간 예타통과 촉구

**- 도지사, 도의원, 김천·상주·문경시장, 지역 시의원과 함께 경북선 탑승 -**

**- 문경~김천간 철도 구축을 위한 민·관·의회 공감확산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중부내륙선의 단절구간인 문경~김천구간 연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유 단체장과 함께 직접 경북선 열차를 탑승했다.

이 날 경북선 디젤열차 탑승은 경상북도지사와 문경시장,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이 함께 오전 11시59분에 점촌역을 출발해 경유역인 상주역에서 상주시장, 지역 도의원 및 상주시의원이 탑승하고, 종착역인 김천역에 13:03분에 도착해 김천시장을 만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자리에 함께한 김천·상주·문경 등 경유지 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천~문경 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짐으로서 민·관·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중부선은 수서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도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문경~김천 철도구간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수서~광주(기본계획 중), 광주~부발(운영 중), 부발~문경(공사 중), 김천~거제(기본계획 중)

문경(점촌)~김천구간(60km)은 단선비전철 구간으로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디젤(무궁화) 열차만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횟수도 1일 5회로 제한적

이어서 도민들이 열차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자동차로 서울(수서)에서 경북 내륙지역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점촌까지 167분, 상주까지 182분, 김천까지 199분 정도 소요되어 서울과 중부내륙간은 접근성이 매우 낙후한 실정이며,

중부선(수서~김천~거제)이 전부 연결이 되어 준고속열차(EMU-250)가 1일 30회 운행되면 서울에서 경북내륙권까지 90분대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경북내륙지역 접근시간 비교

| 구분 | 서울(수서)출발 | | |
|---|---|---|---|
| | 문경(점촌) 도착 | 상주 도착 | 김천 도착 |
| 승용차 | 167분 | 182분 | 199분 |
| 본 사업(EMU-250) | 69분 | 77분 | 87분 |
| 차이 | △ 98분 | △ 105분 | △ 112분 |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일 경북현안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경유 시장·군수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고, 6월 16일 국회정책토론회시 참석한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제출하는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문경~김천 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경유 김천·상주·문경시에서도 각종 홍보 및 지역주민 서명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전한 중부선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부선의 완성을 위해서는 김천~문경구간의 단절이 되면 안 될 것이며, 이 구간이 완성이 되어야만 서울과 경북내륙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주민의 통행권 보장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김천~문경 내륙철도가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별첨>.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 | |
|---|---|---|---|---|---|
| | | 작 성 자 | 과 장 | 설 동 수 | |
| | | | 팀 장 | 성명숙 | 주무관 안수영 |
| | | 연 락 처 | 054-880-3340 | | |

#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경북 샤인머스캣 수출길 활짝

## - 7.13일 경북 샤인머스캣 베트남으로 첫 수출물량 상차식 -

## - 샤인머스캣 열기로 경북 포도수출 해마다 급증, 전국 포도수출 79%담당 -

경상북도를 포도 수출 1번지로 만들어준 샤인머스캣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첫 수출물량이 13일 이철우 도지사와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상차식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김천시장, 김유태 ㈜경북통상 대표, 농업인 등과 함께 ‘샤인머스캣 포도 수출 상차식’에 참석해 샤인머스캣의 금년도 첫 수출물량이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현장을 참관했다.

샤인머스캣은 독특한 향과 맛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일명 망고포도로 알려진 신품종 포도로,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해외 바이어간 물량확보 경쟁이 펼쳐지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샤인머스캣을 생산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포도수출 2천281만불 중 78.7%인 1천796만불을 수출해 포도수출 1번지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3년까지 40만불 수준이던 경북도의 포도수출은 2014년 1백만불을 돌파하고, 2016년 3백만불, 2017년 6백만불, 2018년 1천만불에 이어 지난해 1천8백만불을 기록해 매년 100%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이 수출한 포도 1천796만불 중 샤인머스캣 비중은 79.7%인 1천431만불에 달해 신품종 포도 샤인머스캣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샤인머스캣의 독특한 맛을 해외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해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인 ‘daily’로 수출포도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함께 고품질화 공동마케팅을 진행한 것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샤인머스캣이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농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면서도, “최근 재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외시장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 ❑ 포도 수출동향

○ '19년 포도 수출 18백만불, 전국 23백만불의 78.7% 담당

- 샤인머스캣의 선풍적 인기로 도 포도수출 전년대비 71.9%↑

* 포도 수출 : 상주 9,773천불, 김천 5,632, 영천 1,280, 경산 971, 문경 306
ㄴ(전국의 42.8%) ㄴ 24.7% ㄴ 5.6% ㄴ 4.3% ㄴ 1.3%

* 샤인 수출 : 상주 8,791천불, 김천 3,539, 영천 916, 경산 766, 문경 306

* 주 수출국 : 중국 31.1%, 베트남 25.3, 홍콩 22.2, 싱가포르 5.3 등

- 샤인 수출비중 : 도 포도 수출의 79.7%인 14,318천불

- 최근 포도수출량(천불)

| 구분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
| **경북** | **17,962** | **10,447** | **6,345** | **3,300** | **1,522** | **1,000** | **452** |
| 전국 | **22,812** | 13,884 | 8,490 | 5,123 | 3,284 | 2,253 | 1,700 |
| **도비중** | **78.7%** | **75.5%** | **74.7%** | **64.4%** | **46.3%** | **44.4%** | **26.6%** |

* 샤인 최근 매년 60% ~ 100%씩 성장, 우리도 점유율 또한 매년↑

○ 금년도 샤인머스캣 재배확대로 수출량 급증 전망

➡ **샤인머스캣 재배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위험을 수출확대를 통해 제거**

## ❑ 샤인머스캣 사진(원본파일 별도첨부)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이석호 | |
| | | | 팀 장 | 허봉기 | 주무관 손승현 |
| | | 연락처 | 054-880-4219 | | |

# 도청신도시 인구 2만명 돌파 눈앞!

## - 6.30일 현재 인구 1만8천143명, 금년 하반기 2천5백명 증가 예상 -
## - 금년 하반기 9개 유관기관 이전 완료, 인구증가 가속화 기대 -

경상북도는 금년도 2분기 도청신도시의 인구현황, 상가 및 편의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의 정주환경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금년 내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만8천143명으로 전분기의 1만7천618명과 비교하여 525명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7월 6일부터 869세대의 임대주택 코오롱하늘채의 입주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 2천5백명 정도의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

금년 9월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하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5개 기관이 동반 이전하는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가 준공되면 인구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 및 편의시설은 음식점 203개, 학원 110개, 카페(디저트) 64개, 이미용 47개, 스포츠 시설 28개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이후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스포츠 시설로 18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카페(디저트)가 80%의 증가율을 보여 3차, 4차 서비스업이 발달된 소비도시임을 알 수 있으며, 7월 5일에 외상전문 성형외과가 개원되어 상처치료, 피부 관리, 성형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시설 현황은 39개교(원) 4천611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지난 분기

와 비교해 초등학생이 265명 증가해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어린이집은 1천2백명의 정원에 879명, 유치원은 648명 정원에 592명으로 각각 321명과 56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에 예담 유치원(6개 학급, 128명)이 개원할 예정이라 신도시의 교육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시설로 아파트는 95.7%의 분양률과 92%의 입주율을 보였으며, 오피스텔은 85.1%의 분양률과 89.8%의 입주율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말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500세대의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신도시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주택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호 신도시조성과장은 “금년에 9개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이전이 진행되면, 신도시의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맞추어 의료, 교육, 건강분야 등에 한층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장 상 열 | |
| | | | 팀 장 | 육상호 | 주무관 송승훈 |
| | | 연락처 | 054-880-3947 | | |

# 경북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쾌거!!

##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영주·영양·봉화·의성 선정, 국비 62억원 확보 -

경상북도는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0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62억원(총사업비113.5억원, 지방비 51.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20개 지역개발 공모사업 중 경북도는 4개 사업을 확보했으며, 이는 다양한 사업 발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 공모를 위한 용역비 시·군 지원 등 철저한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항공산업 거버넌스 및 항공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유일의 항공체험센터이며, 향후 영주시의 항공산업플랫폼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 35억원(국비20억 지방비1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건립예정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목공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지역 특성화관광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 47억원(국비20억 지방비27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양군에서 추진하는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은 국유림 명품숲으로 지정(2020.6.10.산림청 발표)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대의 자작나무숲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자작나무숲 진입로·산책로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원(국비20억 지방비8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사업’은 고령친화사업으로서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폐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해 지역주민, 특히 고령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5천만원(국비2억 지방비1.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모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소규모 기반시설 신설·정비 및 체험관광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20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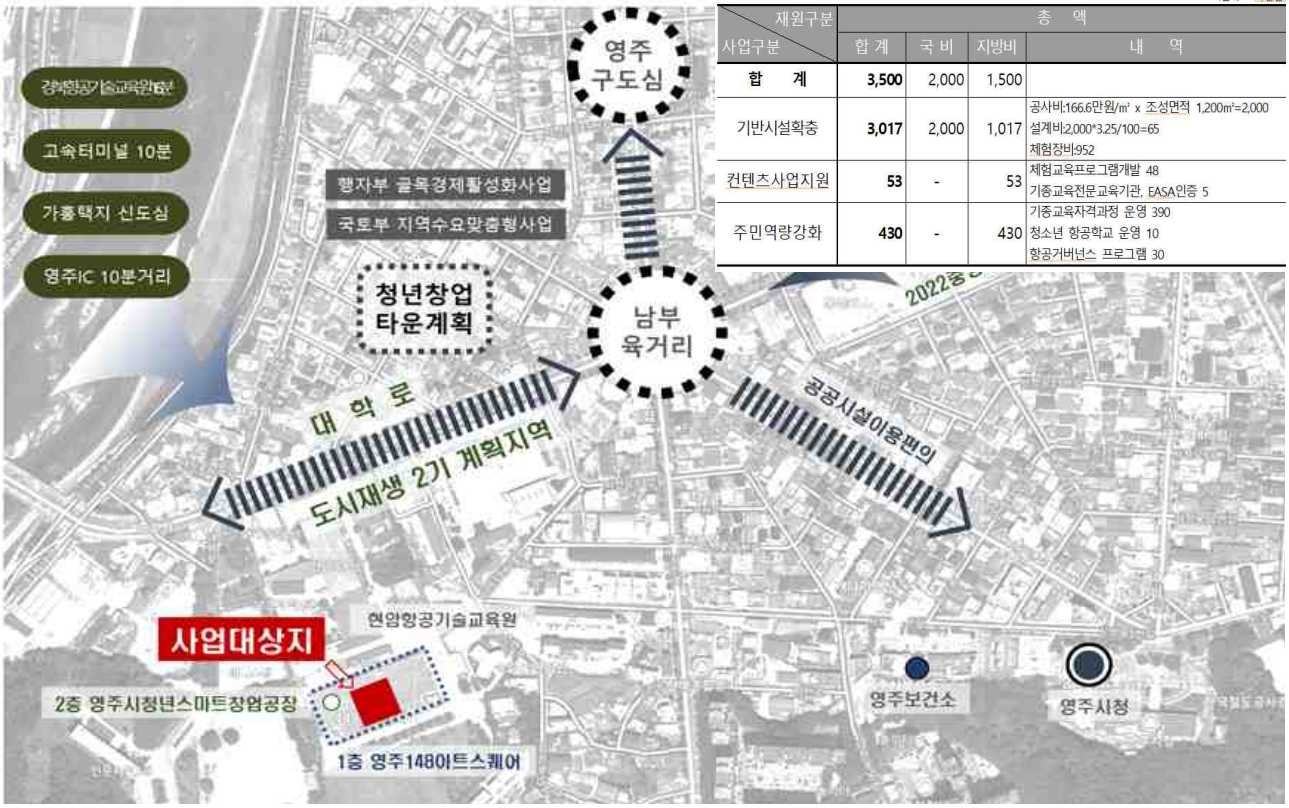
## ❑ 선정사업 : 4개 사업 - 총사업비 11,350백만원(국비 6,200, 지방비 5,150)

| 연번 | 시군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 (백만원) | 내 용 |
|---|---|---|---|---|---|
| 1 | **영주** | 일반 사업 |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운영 | 3,500 (국비 2,000 지방비 1500) |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플랫폼 구축**<br>-경북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구축 (실습실, 강의실, 기재재 설치)<br>-컨텐츠 사업지원 (항공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br>-역량강화(청소년항공학교 등) |
| 2 | 의성 | 고령 친화 |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사업 | 350 (국비 200, 지방비 150) | **다인면 기반 고령친화형 마을정비사업**<br>- 덕지2리 경로당 신축<br>- 마을경관 정비사업<br>- 주민 맞춤형 교육 실시 |
| 3 | 영양 | 일반 사업 |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 2,800 (국비 2,000 지방비 800) |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br>-기반시설(자작나무숲 힐링센터, 전기차 운영관련 시설 조성)<br>-체험시설(자작나무숲 체험원)<br>-경관개선(자작나무 가로수 식재)<br>-주민역량강화 |
| 4 | 봉화 | 일반 사업 |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 4,700 (국비 2,000 지방비 2,700) | **춘양목 테마 관광체험 기반 조성 60,068㎡**<br>-뚝딱뚝딱 목공예 체험센터(체험센터 / 목재보관소 등)<br>-아찔아찔 숲 속 놀이터(목재놀이시설물 /친환경 벤치 등)<br>-또각또각 숲 속 나드리길<br>-산들산들 숲 속 휴게쉼터(포켓공원/진입광장 조성)<br>-진입도로 개설 |

## 〈영주시 –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단위 : 백만원)

| 재원구분 / 사업구분 | 총 액 | | | |
|---|---|---|---|---|
| |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내 역 |
| 합 계 | 3,500 | 2,000 | 1,500 | |
| 기반시설확충 | 3,017 | 2,000 | 1,017 | 공사비:166.6만원/㎡ x 조성면적 1,200㎡=2,000<br>설계비:2,000*3.25/100=65<br>체험장비:952 |
| 컨텐츠사업지원 | 53 | - | 53 |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48<br>기종교육전문교육기관, EASA인증 5 |
| 주민역량강화 | 430 | - | 430 | 기종교육자격과정 운영 390<br>청소년 항공학교 운영 10<br>항공거버넌스 프로그램 30 |




## 〈영양군 –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조성사업〉



## 〈봉화군 –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47억(국비20억 군비27억)

### 3 – 1 기본구상




### 3 – 2 종합계획도




## 〈의성군 –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사업〉

350백만원(국비200 군비150)




※ 사업대상지 위치 : 해당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대상지 위치를 위성영상지도, 지형도(1/50,000~1/25,000) 등에 표시(변경가능)
※ 사업대상지 구역계 : 위성사진에 사업대상지 구역계 표시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한 재 성 | |
| | | | 팀 장 | 한영옥 | 주무관 강효순 |
| | | 연락처 | 054-880-2734 | | |

# 경북도, 수출기업 SOS 요청에 수출물류비 1천만원 지원

## - 7.20일부터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접수 -
## - 상반기 수출선적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상·항공운임 인상으로 도내 수출기업에 가중되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수출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선박과 항공기 운항이 감편 또는 중단되면서 화물운송 운임이 급등했고, 자체 화물전용기 또는 전세기 임대, 우회수송 등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에 발생한 물류비를 18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경북도내 공장보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국내수출운송비 및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단 1천만원 한도를 소진한 139개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내 소재 공장을 활용한 OEM 수출기업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각 업체별로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관련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대구세관 등의 수출실적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7월 13일(월)부터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7월 20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에 연락하면 된다.

‘경북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현우정밀(주)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운행 중단으로 근거리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항공화물 운임은 4~5배까지 치솟았고, 해상운임도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수부진과 주요 수출국의 봉쇄조치 등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전 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의 생존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 | | |
|---|---|---|---|---|---|---|
| | | 작성자 | 과 장 | 김 진 규 | | |
| | | | 사무관 | 문성준 | 주무관 | 서영주 |
| | | 연락처 | 054-880-7724 | | | |

# ‘백두대간 송어’ 내수면어류로 첫 군납품 길 열어!

##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극복. 새로운 소득활로 롤 모델 -

## - 연어과 어류인 송어, 신세대 장병 입맛 공략 성공 -

경상북도는 내수면 양식 대표어종인 송어가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내수면어류로는 처음으로 군납용으로 납품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소비활로 개척으로 코로나19와 장기불황 등 어려워진 업계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번에 납품하는 송어는 상주시 소재 이화정 송어장(대표 박주형)에서 HACCP양식* 시스템으로 관리 생산되었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인증된 양질의 어종이다. 특히, 국방부 시식평가에서 큰 호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올해 8월 말까지 800g급 25톤(2억3천만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HACCP 양식 :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사료, 용수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하게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송어는 5℃~24℃ 수온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류로 맛과 식감이 연어와 비슷하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 동맥경화와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혈전방지, 뇌기능 유지개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백두대간 송어의 군납용 납품으로 도내 내수면 양식어업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며, “경상북도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시설 현대화 및 최신장비 지원을 통해 도내 양식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 | | |
|---|---|---|---|---|---|---|
| | | 작 성 자 | 정책관 | 박 시 균 | | |
| | | | 사무관 | 이배일 | 주무관 | 김효정 |
| | | 연 락 처 | 054-880-2759 | | | |

# 경북도, 디지털통상 시대 맞춤형 청년무역인 양성에 박차

**- 7.13일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청년인재 60명 입교식 개최 -**

**- 2013년 이래 총 502명 배출, 취업률 82%, 무역실무와 현장 전문지식 교육 -**

경상북도는 1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교육생, 무역협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입교식을 가졌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청년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0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재학생 및 대학원 진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344명 중 282명(82%)이 취업해 수출입무역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60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국제 교역에 대비해 무역실무와 현장의 전문지식을 쌓으려는 청년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대구지역 대학생 13명을 선발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청년들의 소통과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간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지난 6월 온라인 무역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무역실무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무역교육은 △무역법령, 계약, 통관·관세 등 무역이론 △무역서신 작성을 위한 무역영어 △유망품목, 시장분석 수출시뮬레이션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현직 무역기업체 대표들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은 무역실전대비 과정 중 가장 인기가 높다.

아울러, 교육 수료 후에는 △우수 수료생 무역현장탐방(일본, 인도네시아 수출입상품 교역전 등) △무역아카데미 온라인 심화강좌 수강 △국제무역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등 국제 무역환경 견문을 넓히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무역동향 및 기업채용정보 확대로 청년취업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교육과정도 더욱 특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며, “디지털통상 시대를 맞아 새롭게 역량을 갈고닦아 준비된 청년무역인으로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며 새출발을 응원하였다.

<사진별첨>

참고

#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입교식 개최

◈ 국내외 산업·고용 환경 등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참여교육생들의 각오와 결의다짐의 장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13.(월) 11:00

❍ 장　　소 :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 참　　석 : 70명 정도(교육생 60명 등)

- 道 경제부지사,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 제8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생 60명 등

❍ 주요내용 :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교육생 격려

❍ 주　　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시간계획

| 시 간 |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1:00 ~ 11:05 | 5′ | ▸ 개회 및 경과보고 | |
| 11:05 ~ 11:15 | 10′ | ▸ 인사말씀<br>- 道 경제부지사<br>-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
| 11:15 ~ 11:20 | 5′ | ▸ 교육생 선서<br>- 교육생 대표 2인 | |
| 11:20 ~ 11:25 | 5′ | ▸ 기념촬영 및 폐회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 |
|---|---|---|---|---|---|
| | | 작 성 자 | 과 장 | 김 수 연 | |
| | | | 담 당 | 김신동 | 주무관 | - |
| | | 연 락 처 | 053-320-0246 | | |

#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양성 프로젝트 시동!

**- 도농업기술원, 7. 13(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2기 교육 개강식 -**

**- 사전교육(6주), 창업실습훈련(1~2년), 창농지원 3단계로 맞춤형 교육 지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3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할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2기 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3無(무자본·무연고·무기술)의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1개월간 공개모집을 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3명이 선발됐다.

개강식에는 교육생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앞으로 농업이라는 길을 선택한 교육생들의 미래와 농업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강식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성에 지어질 창업실습훈련장과 1기 교육생 창업현장 견학을 통해 2기 교육생들의 미래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주었다.

이번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3단계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입문단계인 ‘사전교육’은 7월 13부터 8월 19일까지 6주간에 걸쳐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작물기초, 딸기수경재배교육, 스마트팜의 이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인 ‘창업실습훈련’은 1년에서 2년간 진행되는데, 첨단 스마트 온실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첨단 기기를 작동해보며 농작

업을 손에 익히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창업지원’에서는 창농 준비가 된 예비 청년농업인에게 개별 창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도시청년들이 경북에 꾸준히 유입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개강식 계획

- **일　　시** : 2020. 7. 13(월) 11:00　※ 개강식 : 11:00~11:30
- **장　　소** : 경상북도농업인회관 3층, 의성현장
  (주소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번길 30)
- **인　　원** : 75명(교육생 및 가족 60명, 관계관 15명)
- **주요내용**
  - ○ 개강식, 인사말씀, 단체촬영, 오리엔테이션
  - ○ 창업실습훈련장 및 1기 교육생 창업장 현장 견학 등
- **시간사용계획**

| 시　간 | 분 | 내　　용 | | 비　고 |
|---|---|---|---|---|
| 10:30~11:00 | 30 | 회관 3층 | 등록 | |
| 11:00~11:30 | 30 | | 개강식 | |
| 11:30~12:00 | 30 | | 설명회(스마트팜 교육 전반) | |
| 12:00~13:00 | 60 | | 중식 | |
| 13:00~14:20 | 80 | 현장 견학 | 이동(농업인회관 → 창업실습훈련장) | 안계면 시안리 156-1 |
| 14:20~15:00 | 40 | | 창업실습훈련장 견학 | |
| 15:10~15:20 | 10 | | 이동(창업실습훈련장 → 1기 창업장) | 다인면 삼분리 1554-4 |
| 15:20~15:40 | 20 | | 1기 교육생 창업장 견학 | |
| 15:40~17:00 | 80 | | 이동(농업인회관) | |
| 17:00~18:00 | 60 | 회관 2층 | 오리엔테이션 | 혜윰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7. 13(월)】 | 담당부서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 | | |
|---|---|---|---|---|---|---|
| | | 작성자 | 과 장 | 백 승 욱 | | |
| | | | 사무관 | 조상국 | 주무관 | 이민웅 |
| | | 연락처 | 054-880-6332 | | | |

# 여름철 벌집제거 증가! 벌 쏘임 주의!!

**- 벌집제거 출동 증가, 벌 쏘임 방지 안전수칙 준수 당부 -**

**- 벌에 쏘였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신속히 119신고 -**

경상북도는 최근 벌집제거 119신고가 증가하고, 벌 쏘임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벌집제거 출동횟수를 집계한 결과 1천49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천451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981건 출동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3건 출동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소방은 작년 6~9월까지 4개월 동안 2만134건의 벌집을 제거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8건 출동한 셈이다.

또한, 벌 쏘임 환자도 전체 1천58명 중 877명(82.9%)이 6~9월에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벌써 152명이 벌에 쏘였고 6월에만 77명이 벌 쏘임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다.

119에 걸려오는 벌집제거 출동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6~9월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이 0.5~1.0℃ 높아 벌집제거 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14일 경산시 60대 남성이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월 8일 안동시에서 70대 여성이 집안일을 하던

중 벌에 쏘여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제초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주위에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냄새와 색채에 자극을 받으면 공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는 가급적 피하고, 밝은 색보다 검고 어두운 색에 더욱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어 검은색 옷 또한 피해야 한다.

주위에 벌이 있을 때 옷이나 수건으로 흔들어 쫓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만일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벌집 주변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안전하다.

벌에 쏘였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때는 누워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통증과 가려움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남화영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여름철, 벌들의 활동증가로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벌집을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위협을 느꼈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없음>

**참고**

# 말벌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

## 벌쏘임 사고시 사망원인 (특정항원 반응자는 사망률 높음)

○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 자기면역질환**

- 벌독(항원)이 몸에 들어오면 히스타민 종류의 항체가 형성, 이 항원에 대한 항체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나타나는 증상

○ 벌 자체의 독보다는 대응하기 위한 **과다한 항체로 인한 쇼크**

○ 벌 쏘임 후 혈관확장 등으로 인해 **혈압 떨어짐(어지럼증, 두통) → 의식이 저하**

○ 몸에 부종 발생 → 부종 중 목부분이 붓고 **기도가 좁아 호흡곤란**

## 현장 응급처치

○ 침착하게 대처(초기증상이 심한 혈압저하나 호흡곤란이 없으면 2~3시간 이내 회복)

○ 어지럼과 두통 등 혈압이 떨어지면 누워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

○ 비상약품 휴대(항히스타민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피네피린 자가주사)

## 벌 쏘임 예방 및 대처법

**< 예방법 > 말벌 주의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 도민 홍보**

○ 벌초 등 야외 활동 시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

○ 향수 등 벌을 자극하는 의복 자제 및 벌 앞에서 지나친 과잉 행동

○ 벌집을 건드렸을 때 벌집 주변으로 10m이상 벗어날 것(집단공격)

○ 벌초 시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 완화 약품을 사전 휴대

**< 대처법 > 신속히 119에 신고**

○ 벌에 쏘였을 경우 대부분 얼음찜질 및 항히스타민제 복용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

**알레르기 반응 단계적 증상**

❖ 갑자기 힘 빠짐(어지럼증, 두통, 구토증) → 부종 → 호흡곤란(목 및 기관지 부종시)

**붙임 1** | **벌 종류에 따른 독성비교 및 인체피해**






**붙임 2** **말벌의 종류별 특성 및 작업요령**

| 말벌의 종류 | | 특성 | 작업요령 |
|---|---|---|---|
| 벌 모양 | 벌집 모양 | | |
|  소형말벌 (쌍살벌 등) |  소형말벌집 | - 접시모양의 집<br>- 체구가 크지 않고 종류가 다양 (몸길이 20~25㎜)<br>-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말벌<br>-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약함 |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약하여 일반 방충복(상위)을 입고 에프킬러 사용으로 제거가능<br>-에프킬러에 대한 적응성이 좋기 때문에 화기사용 자제<br>-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소방차이용 고압방수로 제거함 |
|  황말벌 |  황말벌집 | -대부분 둥근 축구공 모양에 출입구가 하나인 집<br>-체구가 크며 하나의 집에 말벌이 상당히 많음 (몸길이 25~30㎜)<br>-소형말벌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음<br>-사람에 대한 공격성 강함 | -방화복과 방충복(상위)을 입고 말벌전용 약제주입기를 이용 출입구 구멍에 집중 분사하면 집안에 있던 말벌이 순식간에 약재에 의해 질식사함<br>-출입구 구멍이 없는 기타 벌집은 에프킬러 적응성이 약하여 말벌전용 스프레이를 이용 분사 해야됨.<br>-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소방차이용 고압방수로 제거함 |
|  땅벌(땡벌) |  땅벌집 | -땅속에 집을 짓고 서식<br>-체구가 아주작다 (몸길이 10~19㎜)<br>-가을철 성묘객 벌쏘임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br>-공격성이 매우 강하고 옷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강하다 | -옷속으로 파고 들지 않도록 말벌전용 방충복을 반드시 착용한다.<br>-삽, 곡갱이, 토치램프를 준비하여 2인 1조로 하여 1명은 땅을 파고 나머지 1명은 토치램프로 땅속에서 나오는 벌을 잡는다.<br>-바로 불을 사용할 경우 킬러가스가 바닥에 체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  장수말벌 (대추벌) |  장수말벌집 | -땅속에 집을 짓고 서식<br>-체구는 큰 것은5㎝정도로 말벌중에 제일 큼 (몸길이 27~44㎜)<br>-장수말벌독은 꿀벌독의 550배임<br>-턱이 강하여 그물도 잘라 버림 | -말벌침 길이가 길기 때문에 1차로 방화복을 착용하고 2차로 말벌전용 방충복을 입고 작업<br>-삽, 곡갱이, 토치램프를 준비하여 2인 1조로 하여 1명은 땅을 파고 나머지 1명은 토치램프로 땅속에서 나오는 벌을 잡는다.<br>-말벌전용 스프레이와 킬러 적응성 없고, co2소화기 사용<br>-말벌중에 가장 큰 종으로 작업중에 쏘이면 벌독이 강하여 쇼크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20. 7. 13(월)】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정 희 석 | |
| | | | 팀 장 | - | 주무관 서남덕 |
| | | 연 락 처 | 054-880-3312 | | |

# 이철우 도지사 민선 7기 2년.. 농촌부활은 시작되었다 !

**- 귀농 전국 1위 · 월급받는 청년농부 · 6차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업 -**
**- 이철우 표(標) 농정 동력.. 농식품 유통혁신 프로젝트 추진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직행 티켓.. 전국 최다 스마트농업화 추진.. -**
**- 전국 최대 농촌개발예산 확보.. 농촌 정주여건 도시화 신호탄.. -**
**- 친환경 축산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미래형 축산모델 선도 -**
**-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청정경북 사수 -**

**경상북도는**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를 힘차게 출발하여 지난 2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 없이 현장중심의 농정을 펼치면서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후 '제 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다함께 잘사는 농촌'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경북 농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농촌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 민선 7기 전반 2년 농정의 틀을 세우다 !

민선 7기 전반기에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4개*의 스마트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귀농 16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최초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농산물유통혁신 컨트롤타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범, 농촌개발사업 6년 연속 최다 국비확보, 2015년 이후 전국유일의 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동) 노지 스마트농업, (포항) 스마트팜 원예단지, (울진) 스마트축산 ICT

**고부가가치 농업화에 집중하여 귀농 1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시행과 농업 6차산업 현장혁명 추진으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북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귀농 전국 11,422가구(16,181명) 중 경북이 2,136가구(3,036명) 유치로 1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매년 1개 면(面) 단위의 3,000여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에 해당된다.

청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청년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는 청년농부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했고,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을 위한 제조·가공·체험·관광산업이 결합된 6차산업 선도모델 214개소를 발굴하여 6차산업의 확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했다.

**농식품 유통혁신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농식품 유통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부문별 실천과제와 추진목표 등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 유통혁신 프로젝트는 선도(First), 혁신(Innovation), 가치창출(Create value)을 핵심가치로 삼고, ①유통구조 개선, ②판로확대, ③유통환경변화 대응, ④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강화, ⑤민관협력(Governance) 체계 구축 등 5개 부문에 걸쳐 20개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 유통전담 기관으로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 할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지난해 4월 본격 운영함에 따라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농산물 현장 수거, 판매 대행 등 유통서비스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유통 플랫폼 :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국민)를 연결시키는 유통 체계(기관)

더불어 농산물 해외판로 개척을 통하여 2019년도에는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액인 5.3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가공식품에 비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포도, 참외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15.4% 증가하였다. 이는 평소 통상세일즈맨을 자처한 이철우 지사의 해외 세일즈 마켓팅(sales marketing) 행보가 큰 몫을 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경북도는 미래 농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상주, 안동, 포항, 울진)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주시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벌국면 일대) 사업은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농업 산업단지로서 총사업비 1,332억원, 조성면적 42ha로 기존 농가가 입주하는 생산단지 7ha, 경영실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4ha, 청년 농업인 교육용 보육센터 2ha,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2ha, 기반조성・공공주택 13ha 등으로 구성되어 미래 농산업 발전의 첨단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원, 면적 53ha, 사과원을 조성하게 되며,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 까지 ICT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지 스마트 팜 표준모델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선정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 총사업비 38억원, 48ha 규모로 온실 밀집지역 내 노후 온실을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여 스마트팜 기반을 마련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지난해 6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울진군 근남면 일원에 총사업비 95억원, 26ha, 한우 2,600두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그 동안 악취와 분뇨,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스마트 축산 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젊은 층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도 매진하여 2019~2020년 농촌개발 공모사업 예산 3천 613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2020년도 국비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9개 지구 630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 5개 지구 820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 45개 지구 1,759억원, △마을만들기 65개 지구 345억원, △시군역량강화 34개 지구 59억원 등 총사업비 3천 613억원 규모로 신청대비 선정률이 90%이상이며, 2015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양하였다.

이는 매년 농촌개발 분야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로 사전 사업성 검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환류) 과정과 철저한 현장 실사를 거쳐 농식품부의 종합검토에 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과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여 경북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국 최대 가축사육(한우 1위, 21%) 지역인 경북도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확대를 위해, 평소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기존 개별 농장 단위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 단위의 광역악취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가축분뇨자원화 촉진 및 악취저감 지원 확대에 207억원을 투입하여 급증하는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관리와 환경보전 및 경관조화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200개소를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300개소까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IO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확대의 일환으로 노동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해 ICT융복합 기계장비 보급 114개소에 227억원을 투입했다. 동시에 가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정보수집 센서(바이오캡슐 등)를 체내외 삽입 하는 IOT 축우관리사업도 93개소에 14억원 규모로 병행 추진했다.

특히, IOT사업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 IOT 기반 축우관리 시스템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활동 부문에서도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 선제적·집중 차단방역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ZERO 청정 축산환경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을 성공적으로 막아 내면서 2015년 3월 이후 5년째, 내륙 유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였고, 같은해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오염원 차단 등 긴급 대응으로 3대 재난형 가축질병 Free 경북을 지켜내고 있다.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라는 방역 슬로건 아래,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상시 자율방역체계 확립,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세부 방역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문화센터 ‘의성 펫월드’가 정식 개장했다.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총사업비 80억원, 부지면적 40,385㎡, 건축면적 1,629㎡ 규모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수영장, 캠핑장, 야외 쉼터, 카페,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코로나 19 사태에 더욱 빛난 발 빠른 대응.....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는 2020년 2월 경북지역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주었다.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람들의 외출 자제로 외식과 각종 모임·행사 취소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경북도는 발빠르게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20억원 추가 지원 등 총 75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기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연장과 올해 이자(1%) 20억을 감면하여 1,772명의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무엇보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힘내라(power up) 대구·경북’ 농특산물 특판 행사,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도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북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팔아주기에 발 벗고 앞장섰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서는 경상북도 사이버 쇼핑몰인 ‘사이소’와 시군

쇼핑몰, 우체국, 위메프, 카카오톡 등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농산물 특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30여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8억원을 지원하여 26만명의 학생 가정에 3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 공모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당초 672백만원에서 4배정도 많은 2,38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지연으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내 13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과 일시 실업자, 도시 유휴인력 등 6만4천여명의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매칭시켜 주었으며, 공공기관·농협, 기업체 및 지역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품앗이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전개하여 1만5천명의 힘을 보태도록 하였다.

## Post 코로나19 농축산분야 선제적 혁신 방안 마련으로 극복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곡물과 농산물 수출 제한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식량안보와 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곡물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업의 구조적인 현실을 볼 때 당장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 팔고,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농식품 수급 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 산업도 재택근무, 집밥, 혼족 등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 음식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농촌 현장 및 SNS 등을 통해 시군, 농업인, 전문가

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농·축·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생산자 단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북농업 혁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에서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강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Post 코로나19 농축산분야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6대 분야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生産)혁신이다.
국제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부족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대량 생산체계를 만들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기능도 강화해서 농작물의 과잉생산 등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부족한 단백질 공급원 확보를 위해 곤충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정적인 곡물 자급률 확보 181억원(3년간), △식량안보 대응 쌀 생산기반 확대 525억원(5년간), △농작업의 기계화 618억원(5년간), △단백질 공급원 곤충산업 육성 364억원(5년간), △자율적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3억원(매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2,198억원을 매년 지원한다.

둘째,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유통(流通)혁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이소'를 중심으로 지역 로컬푸드매장, 도시 농식품 전문매장, 기업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시장을 넓혀가는 비대면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판매플랫폼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형 농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관행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시장진출을 확대하면서 고령농, 소농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유통·판매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축제 개최 1억원(매년), △기업+농산물 콜라보 마케팅 4억원(매년), △청년농부 유투버 선발 2억원(매년), △온라인 유통플랫폼 O2O배송 시스템 구축 34억원(매년), △Home-Mill 농식품 꾸러미 공급 27억원(매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15억원(5년간), △시장진출 교두보 안테나숍 운영 10억원(매년), △공격적인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15억원(매년), △수출용 기능성 친환경 과일 트레이 보급을 위해 매년 20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加工)혁신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공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쉽게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모태펀드 110억원을 지원하여 벤처창업과 기업체의 도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생산자와 식품기업의 계약재배 확대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단계별 맞춤형 농식품산업 육성 194억원(매년), △간편식품(HMR)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 10억원(매년), △식품 안전성 강화 HACCP시설 지원 5억원(매년), △생산자-기업체 상생 계약재배 확대 3억원(매년),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농촌융복합산업(6차) 확산 18억원(매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펀드(모태펀드)에 110억원을 8년간 지원한다.

넷째,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술(技術)혁신이다.
세계는 이미 4차산업으로 기술이 첨단화, 고도화 되고 있고,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시작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고. 노지・원예・축산분야까지 스마트팜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가축개량, 질병 저항성 품종개발, 가축질병 진단키트 및 백신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와 축산분뇨를 고체연료로 가공하여 전기 및 열・온수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분뇨 고체

연료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1,332억원(내년까지), △안동 노지 스마트팜농업 시범사업 245억원(3년간), △포항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 조성 38억원(2년간), △울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95억원(내년까지), △축산분야 ICT-IOT 확산 지원 136억원(매년),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지원 12억원(4년간), △축분연료 발전설비 구축 120억원( ‘21년), △우수형질 한우 품종 개발 지원 12억원(3년간), △질병 저항성 우수형질 한우 개량 1억원(3년간), △가축 코로나VID 진단・치료제 개발 1억원(매년), △동물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1억원(3년간), △축산물 대체 배양육 생산기술 확보 1.2억원(4년간), △누에 기능성 신제품 개발을 위해 3년간 1.3억원을 지원 한다.

다섯째,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인력(人力)혁신이다.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농촌 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3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도시 유휴인력, 농촌봉사 인력을 농촌 일자리와 연계하는 인력지원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입→초기→정착→안정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18억원(매년), △대학생 동아리 활동지원 2.5억원(매년),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 25억원(매년), △경북형 청년 워킹 홀리데이 지원 2.5억원(매년), △청년 안심 정착 지원 30억원(매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확대 지원을 위해 389억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空間) 혁신이다.
지금까지 농촌은 힘들고 불편한 곳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

문화와 복지가 있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관광 보다는 개별단위・가족단위 관광이,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농촌관광 활성화의 호기로 삼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협약 시범사업 430억원(5년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001억원(5년간), △농촌관광활성화 4억원(매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20억원(매년), △체험농장 지정・활성화 6억원(매년), △몸과 마음의 힐링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매년 15억원이 지원된다.

끝으로, 인류 문명(culture)의 태동(胎動)은 농업(agriculture)인 만큼 경상북도는 민선 7기 전반 2년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2년을 Post 코로나19 농축산분야 혁신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청년농부 집중 육성, 유통혁신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농업 확산, 명품전원마을 조성, 농식품기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농촌일자리 창출 등 역점시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진별첨>